

안병훈, 포티넷 챔피언십 최종 공동 4위

등록 2022.09.19 08:10:29



[내파=AP/뉴스시스] 안병훈이 1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내파의 실버라도 리조트 앤드 스파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 (PGA) 투어 포티넷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6번 그린에서 빗속 퍼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안병훈은 중간 합계 12언더파 276타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다. 2022.09.19.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